**57괘**

**전체:** 손巽은 조금 형통하다.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가 있는 것이다.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.

**1효:** 처음에 음이 오니, 나아갔다 물러나는 상이다. 이로운 것은 무인武人의 정貞함을 갖는 것이다.

**2효:** 양이 두 번째에 오니, 상 아래에 굽힌다면, 사모와 무巫로써 왕성하게 활동해야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.

**3효:** 양이 세 번째에 온다 해서, 굽히고 들어감을 어지럽게 여기면 인색하리라.

**4효:** 음이 네 번째에 오면, 회悔가 사라지리라. 사냥에서 삼품을 다 잡을 수 있으리라.

**5효:** 양이 다섯 번째에 올 때는, 정貞하면 길하리라. 회悔는 사라지리니 불리할 것이 없다. 처음부터 유종의 미를 거둘 수는 없는 법이다. 선경삼일先庚三日과 후경삼일後庚에 유의하면 길하리라.

**6효:**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 올 때, 상아래에 굽히면, 그 재물과 도끼를 잃게 될 것이니 그대로 정貞하면 흉하리라.

**전쳬:** 손巽은 조금 형통하다. 이로운 것은 가려는 바가 있는 것이다. 이로운 것은 대인을 만나는 것이다.